농산어촌 유학,
시골로 유학 간다고? 거기서 뭘 배우는데?

시골에서 뭘 배우게?

도시의 복잡한 생활과 과도한 경쟁, 그리고 아이들을 보듬어 주기에는 학부모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뺑뺑이를 돌면서 시들시들해져간다. 농산어촌유학은 36여 년 전 일본 도쿄에서 교사를 하던 아오키 선생이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골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 발걸음이었다. 아오키 선생은 농산어촌유학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름을 채워주는 활동' 이라고 비유한다.

그렇다. "시골에서 뭘 배우게?"라는 질문의 답은 '생기'를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따로 학교 가기 싫어하던 4학생 여학생이 일 년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서 도시로 돌아가 학급회장을 하는 모습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아토피로 마음까지 다치고 말을 하기조차 힘들어하던 아이가, 시골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과 소리 내어 뛰어다니는 모습은 가슴을 젖게 한다.

"그런데 시골에서 학습능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야 '유학' 이라고 하긴 그렇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지금의 대학입시제도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시골은 학습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초등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고, 농산어촌 유학을 하고 있는 시골의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일로 맞춤교육을 하고 있어, 도시에서 학원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생기"이다. 자신의 꿈과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이이다.

지역은 뭐 봉이냐?

"지역은 도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서 뭐가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을 받곤

단체줄넘기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한다. 그러고 보면, '농산어촌 유학은 도시 아이들에게나 좋은 프로그램이지 지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농산어촌 유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내려가 보면 '이것 참' 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5, 6학년이 함께 수업하던 교실이 나누어져 선생님이 따로 있게 되고, 도시 아이들로 인해 시골아이들도 경쟁력이 부쩍 는다. 그리고 적당한 인원이 되니 '협동' 과 '경쟁' 을 함께 배우게 된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것이나 부모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 '농부' 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풍경은 가슴을 벅차게 한다. 이처럼 도시 아이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도시 아이를 시골로 유학 보냈다가, 학부모도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귀농귀촌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이들에게 농산어촌 유학은 꽤 효과적인 계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아이를 보내고 자주 찾게 되는 마을에서 정도 느끼고 귀농귀촌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30-40대의 젊은 세대의 마을로의 유입은 마을을 신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농어촌 유학의 필요성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업에 기반을 둔 농어촌의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교육여건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있어, 이들 지역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어려운 교육환경은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리잡기 힘들게 하였고, 지역 내 인적 자원의 부족은 경제적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낙후된 교육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진행되다보니 농어촌교육이 소외되고 결국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와 달리 균등한 교육기회를 잃어갈 만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져가고 있다. 기간제교사와 순회교사 중심의 땜질식 처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피해 농어촌 학생들은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다.

농어촌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동력을 제공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농어촌 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유학의 성장

2006년도에 (사)생태산촌과 민들레가 함께 도입한 농산어촌 유학이 2012년 현재 다양한 유형의 20여 개

현장으로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 한 집에서 아이 2-3명을 돌보는 형태로 시작하였다가, 15~2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함께 보살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센터형도 확산되고 있다. 농가형의 경우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에서 장점이 있고, 센터형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결합한 '마을공동체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야마모토 선생(일본산촌유학협회 상임이사)이 일본의 산촌유학의 방향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농어촌 유학 성장속도와 에너지가 부럽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아이들의 교류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많은 현장들이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가치와 마을 활성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을 기대한다. '마을공동체형'도 이러한 성장단계 중 한 단계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가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시골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마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30~40대 세대가 마을에 남아 있기 힘들게 된다. 평균 3년차 이상의 농산어촌 유학 현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는 모습은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농산어촌 유학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농산어촌 유학은, 첫째는 아이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득이나 마을 활성화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가을이면 직접 감을 따 옮기기도 한다

중요한 점이 있으나, 교육적 관점에서 집중하면 다른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연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농어촌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시행지역을 단정하거나 세부사항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농어촌 유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교육청, 지자체 등)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부계획의 수립은 지역조사와 학부모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 교육청, 시설대표, 지역주민, 개별농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어촌 유학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우리 농산어촌의 우수한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및 마을이 활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철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cs0353@korea.kr